

9월13일(월)/로마서10:16~21

제목: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거부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예외였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들을 뿐 아니라 잘 알고 있었다.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알았다. 심지어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잉태될 것도 알았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 끝까지 퍼질 만큼 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다(18절).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강박해졌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 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련하게 하셨고 이방민족들에게는 메시아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19~20절).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법칙이 예외였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정설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17절). 교회에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는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계속 들려주면 된다. 상대방이 싫어해도 계속 들려주어야 한다. 그의 귓가에 복음의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지면 믿음이 스며든다. 전도란 계속 복음 방송을 틀어주는 것이다.

9월14일(화)/로마서11:1~12(1)

제목: 하나님의 비밀병기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없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한다.(1절)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를 예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2절). 엘리야는 집요하게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과 홀로 사투하면서 회의를 빼졌다.(3절) 그는 의인에게 닥치는 일련의 고난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해졌다. “너 뿐 아니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었다(4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사람들이 장차 엘리야를 도울 것이다. 바울은 이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장차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5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자들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숨은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들은 비밀병기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구원과 종말을 앞당길 비밀 병기들이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세계 선교를 외쳐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의 비밀병기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

9월15일(수)/로마서11:1~12(2)

제목: 흥미한 크리스찬

구원을 구한 이스라엘은 그것을 얻지 못했고 구원을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다(7절).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흥미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8절). 그리고 호된 눈과 뼈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0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대로 놔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질투를 느껴서 장차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11절).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는 흥미한 정신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흥미하였다. 그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실패 원인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올바른 이성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흥미한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흥미한 크리스찬이 주로 이단 사설에 잘 넘어가고, 아무 설교에나 아멘하고, 교회의 적법한 질서들을 어지럽힌다. 흥미한 크리스찬들이 건전한 기독교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 중 하나이다. 예수를 믿어도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9월16일(목)/로마서11:13~24(1)

제목: 모태신앙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느껴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할 목적이었다(13~14절). 그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였다(13~14절). 그는 자기 동족을 첫 곡식과 거룩한 뿌리로 비유했다(16절). 본래 이스라엘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왜냐하면 첫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곡식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바울은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그러하다고 하였다(16절). 이 뿌리도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모세 같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함으로 이들의 후손도 그러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믿음의 유산과 전통은 무시할 수 없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무시할 수 없다. 믿음의 저력은 대를 이어서 흐르기 마련이다. 저력은 때가 되면 나타난다.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의 후손을 귀하게 보신다.

9월17일(금)/로마서11:13~24 (2)

제목: 오만한 신앙은 언젠가 꺾입니다.

하나님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서 돌감람나무가 그 진액을 빨도록 하셨다(17절).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19절).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는 오만하거나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된다(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접붙인 가지보다 원가지를 더 아끼시기 때문이다(21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시다(22절). 인자는 사랑을 가리키고 준엄은 정의를 가리킨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만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정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히틀러에 의해 학살당한 것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오만하면 접붙인 가지인 우리는 꺾여서 불살라질 수 있다(21~24절). 신앙에 대하여 오랫동안 오만하고 자궁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꺾으신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